

탈북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1. 탈북 청소년 현황

1) 탈북 청소년의 정의

2016년 기준 탈북자의 한국 입국 인원은 3만 명을 넘어섰다.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형성되어 왔는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2항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을 벗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본고는 사회적 통합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청소년에 주목하여 그들을 우리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방법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용어는 다양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청소년, 새터민청소년 등¹⁾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탈북청소년지원센터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청소년이라 지칭하고 있는 점²⁾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서 탈북청소년이라 지칭하는 점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도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겠다.

2) 탈북 청소년 대상 교육 서비스 현황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교육적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사회의 유해적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있다.³⁾ 이 연령대 탈북 청소년의 초중고교육현황을 중심으로 부모 중 한 사람 이상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 3국에서 태어난 아동·청소년 등 법률적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탈북 가정의 자녀로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지원대상 교육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일정기간 조사를 받고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하나원 하나돌학교와 삼국초등학교에 위탁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하나원 내 하나돌학교에서 입소기수별로 학급을 편성해 국,영,수 수준별 교육을 받는다. 우리사회 및 학교 이해(현장체험학습)기초학력증진 및 학력결손 보충, 진학진로 탐색 및 설계등 정규프로그램과 정보화교육, 예체능활동기초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은 2011년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거쳐 한국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은 2,517명이다. 전체 인원의 64%가량이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탈북청소년들은 남북한 교육체계의 차이와 탈북과정에서의 수업 결손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기준,

1) <http://www.rainbowyouth.or.kr/>무지개청소년센터

2) <http://www.hub4u.or.kr/>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3) 두산백과사전.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	--

<표1> 시도별재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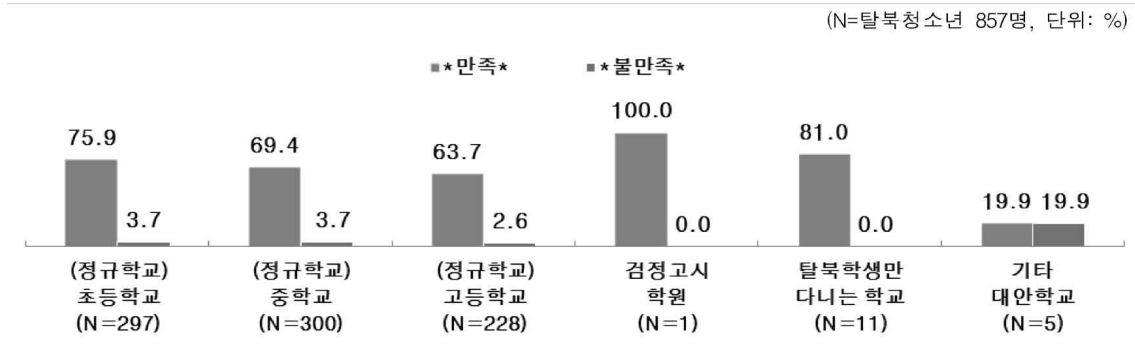
<표2> 연도별 초중고학생

학령기에 정규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은 60%에 지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행히도 2008년 10.8%에 달했던 학업중단율은 2016년 2.1%로 감소하였다. 한편 학령 초과,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정규 초중고가 아닌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도 있다.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서울,경기,충남)에 재학 중인 8~24세의 학생은 2016년 4월 총 171명으로 집계되었다.이 수치는 2014년 283명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추세적으로 볼 때, 학업중단율의 수치 감소가 대안학교 재학생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표3> 중도탈락율

다만, 재학형태별 교육에 대한 남북하나재단의 2016년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중, 전반적 만족도조사를 살펴보면, 정규학교는 초등학교 75.9%, 중학교 69.4% 고등학교 63.7%로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교육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안학교나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만족도는 81.0%, 기타 대안학교 19.9%로 나타났다. 사례가 적어 비교수치로 사용하기엔 유의를 해야겠지만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 소통과 치유를 교육목표로 하는 대안학교 및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교육과정의 중심에 문화예술교육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한으로의 이탈을 결정하고 실행한 부모가 북한사회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이탈 후 적응에 대해 일정하게 준비된 상태라면, 청소년들은 가장 불안정한 생애주기를 통과하고 있는 동시에 부모의 선택에 의해 낮은 환경에 놓여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 중심의 교육은 일정하게 심리적 지원이 더해진다고 해도 그들의 적응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을 통한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남한사회로의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받는 탈북청소년에게 교과교육을 넘은 더욱 실효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 각 재학형태별로 '*만족*'은 '매우 만족+만족' 응답 비율 및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불만족' 응답 비율임

주) '검정고시 학원' 및 '탈북학생만 다니는 학교' 및 '기타 대안학교'는 사례 수가 매우 적으므로 '정규학교'와 비교 시 유의

<표4>2016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 탈북 청소년 교육 현장의 이해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는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시·도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협력지원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특례 입학전형 확대, 탈북학생 한명 한명을 돌보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탈북학생의 학업 공백과 사회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탈북학생용 표준(보충)교재 개발·보급, 탈북학생 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교원연수 등 경기, 광주, 부산이 교육청에 조례⁴⁾를 만들어 대안학교 및 지역 탈북 청소년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사업 가운데는 문화예술 향유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지, 문화바우처카드사업(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며 세대당 연간 10만원 지원)이 탈북청소년과 연관되며,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범부처사업 안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정착센터인 하나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입국 시 하나원에서 기초교육을 마친 뒤 거처가 마련되면 해당 지역의 기관에 유입하여 지역 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와 대안학교의 사례를 통해 탈북 청소년 교육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연합뉴스 2017.6.6. 부산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전국에서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

1) 대통령령에 의한 대안학교

① 셋넷학교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하나원 내 하나돌학교에서 2개월간 청소년반 전일제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 수료 후 자신의 거주지 정규 학교에 전입할 수 있다. 셋넷학교(교장 박상영)는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중·고등 교육과정 각 1년 3학기씩 운영되는 셋넷학교는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순수 비영리 민간단체이기에 졸업한다고 해서 중고등학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문에 셋넷학교는 주간에는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사회통합교육, 직업교육을 하고, 야간에는 검정고시 교육을 한다. 현재 총 26명의 학생들이 두 번째 교향 서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는 남북한 교육격차, 탈북과정에서의 학력중단 등으로 일반학교 직접 편입하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다. 상주교사 4인과 30여명에 이르는 자원교사가 운영하는 셋넷학교는 비인가도시형 대안학교이다. 학습기간은 일년(3학기)이며 주 5일 40시간 학습한다.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국어,영어,사회,과학,수학,역사를 기본 학습과목으로 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는다.

셋넷학교의 특이점은 문화예술교육 수행 기간이 가장 길다는 것이다. 공연수업과 합창수업을 필수로 시행한다. 영상물 제작에도 많은 결과물을 갖고 있는데 <영상작품모음집1 2005~2006>: 28분 다큐멘터리로 제3국에 떠도는 탈북자의 이야기를 제작했다.<영상작품모음집2 2007>: 창작뮤지컬 나의 길을 보여다오! 는 25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참여한 노래극,집단마임,무용극,인형극,그림자극 등 내용에따라 다양한 극 구성을 시도하였다. <영상작품모음집3.2008~2009>: 탈북청소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화한 작업이며 <영상작품모음집4 2010>: 6.25 전쟁 60주년 기념 사진전시 및 공연을 11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이처럼 셋넷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표현-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1~2년 간격으로 기록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은 아카이브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가치이다.

셋넷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사회 진입시 문화충돌과 문화충격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한 좋은 대안이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교육정책제도 개선점을 모색하는 이 연구와 맞닿아 있다.

② 여명학교

여명학교'(교장 이흥훈)는 탈북청소년이 고연령, 저학력으로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없거나 진학해도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2004년도에 설립되어 2010년도에 최초로 학력 인정을 받은 서울시 유일한 교육청 학력 인정 대안학교이다.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경험들을 집약하여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패러다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 교육 방법, 생활지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이들에 대한 1인당 적정 교

육비, 교육 지원 방법, 평생교육 과정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교직원으로 함께 하여 그들이 통일 준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이는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명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치유, 소통, 화합을 목표로 하며 미술치료, 전문 심리 상담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전문가 포함) 1인 1기(음악 치유)로 구성된 심리치료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 체육특성화(건강회복)탈북 과정 중 학업 공백이 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수업 제공 및 학업 결손 보강 수준별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 격차 완화 및 실력 향상 각기 다른 재능 및 진로를 계발할 수 있는 맞춤형 예체능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에 진로 수업은 남북한의 상이한 직업세계와 산업구조를 이해시키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 능력을 감안한 진로 지도 (전문 진로교육기관 협력)에 역점을 둔다.

2) 지역별 하나센터(통일부 산하)

2009년 통일부는 전국 6개 지역(서울북부, 경기북부, 경기서부,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새롭게 거주하게 되는 하나원 퇴소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지원하도록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개소한다. 신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거주지 편입 직후 3주간의 체계적인 지역교육을 실시하는 통일부 산하 연계기관으로서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가운데 선정한다. 하나센터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편입하는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취업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교육과 1년간의 사후 관리를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 선정은 통일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내고 지자체 1차 심사와 통일부 종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 경험과 실적, 북한이탈주민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경험, 경험 있는 직원 및 양질의 자원봉사자(상시 10명 이상) 확보 여부, 재정능력 및 자체재원 확보 여건, 교육공간 확보 여부 및 교육시설 접근성(대중교통차량 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1차 심사를 한 후, 통일부의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⁵⁾

2017년 3월 통일부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 간 협업을 통한 지역통합과 복합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개 하나센터를 '지역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⁶⁾. 남북하나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제주하나센터는 남북하나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첫 사례로서 1.지역 내 정착지원 협업의 구심점 2.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3.탈북민의 커뮤니티(community) 센터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 3개 '지역통합지원센

5)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정착지원과 2017.5.23. 네이버 지식in 블로그 질의 답변

6) 제주하나센터 외에 서울남부하나센터(도심 밀집형)와 부산하나센터(광역 분산형)가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된다. 시범 운영되는 하나센터는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탈북민과 지역주민간의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과 정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된다. 통일부는 올해 3개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성공 모델과 경험을 다른 하나센터로 전파·공유해 확대·시행해나갈 계획이다. 2017.4.2.국제뉴스 박종진기자

터'를 시범 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성공 모델과 경험을 다른 하나센터로 전파·공유해 확대·시행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하나센터는 통일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23개 하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센터명	운영단체	관할 지역	소재지	전화	
(4)	동부	한척 서울지사(관악봉사관)	송파, 강동, 강남, 서초 관악, 동작, 성동, 잠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28, 동석관아회당나눔봉사센터2층	02-882-5210-2
	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종로, 중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9 (구 가양5동 1486)	02-2668-0364-5
	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1길 16	02-2690-8762
	북부	공동종합사회복지관	노원, 성북, 중랑, 강북, 도봉, 동대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127	02-975-2465
부산	부산	동아대학교	전 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051-200-5990
대구	대구	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대구, 경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58 다포빌딩 4층	053-356-0463
인천	인천	하이사회복지센터	전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71 가산타워 12B호	032-437-1173
광주	광주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전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상부화원로 19-1 일우빌딩 2층	062-374-4264
대전	대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전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동부로 56-7, 2층	042-283-9190-2
울산	울산	한국국제봉사기구	전 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263-5번지	052)295-3161 249-3161
경기 (4)	동부	청송종합사회복지관	수원, 성남, 용인, 인천, 광주, 하남, 구리, 양평, 여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	031-714-0125
	서부	너유사회복지관	부천, 김포, 평택, 시흥, 안양, 과천, 의왕, 안산, 군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46	032-325-2161
	남부	평택YMCA	평택, 화성, 오산, 안성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66, 4층	031-656-2000
	북부	가족보건복지협회	포천, 의정부,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동두천, 가평, 인천	경기도 포천시 송모부로 12432 청송빌딩 202호	031-544-1154
강원 (2)	남부	명동종합사회복지관	원주, 횡성, 평강, 영월, 정선, 강릉, 동해, 삼척, 태백	강원도 원주시 예송관길 31 (명동2동705번지)	033-762-8132
	북부	자유총연맹 강원지부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양양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45 춘천지력기념관 2층	033) 253-6670
충북	충북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 지역(세종 포함)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043-238-0840
충남	충남	천안향우종합사회복지관	전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향우11길 57	041-415-1515
전북	전북	전주YWCA	전 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 자동 1가 547-1번지	063-224-5501-2
전남	전남	목포종합사회복지관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12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3층	070-4680-2141
경북	경북	(사)경북이주민센터	전 지역(경산 제외)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 284, 3층	054-444-8861
경남	경남	한척 경남지사(창원봉사관)	전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2층	055-263-4138
제주	제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064-723-2123
합 계	전국 16개 시·도 총 23개 지역적응센터 지정 운영				

<표5>2016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현황

3) 교육청 인가 탈북청소년교육 특성화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최초로 교육청 인정을 받은 탈북 청소년 학교로서 중·고교 통합과정을 운영한다. 학교법인 전인학원이 운영하며 교육부는 학교 시설비를, 통일부와 경기교육청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4) 문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범 부처간 협력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사회성과 자존감 등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범 부처간 협력지원사업은 2005년 국방부와 법무부 2개 부처와의 협력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 기준 국방부와 법무부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통일부, 국가보훈처가 추가되어 총 8개 부처가 참여해 1,160개의 시설에서 1,200여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6> 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범 부처협력 교육사업 사례집

그 중,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내용은 통일부,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사무소(하나원), 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민간대안교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하나원 입소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활동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사회적 관계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 관련 문화예술교육은 2014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2개의 프로그램이 시작하여 2016년 북한 이탈주민 (하나원)4개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청소년) 5개 프로그램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분	운영단체	교육시설	프로그램	교육인원(명)
북한이탈주민(청소년)	5	5	5	66
북한이탈주민(하나원)	4	2	4	85
총계	9	7	9	151

<표7> 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구분	운영단체	교육시설	프로그램	교육인원	예술강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5	5	5	96	7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4	2	4	119	7
총계	9	7	9	215	14

<표8> 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구분	운영단체	교육시설	교육인원	예술강사
북한이탈주민	2	1	62	3

<표9> 2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범 부처협력 지원사업안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지원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도부터 진행하기 시작한다. 한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이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⁷⁾ 등에서 탈북청소년을 학습대상자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그 중 연구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진행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예술교육연구단체 인터미디어스페이스알엠 충남지부⁸⁾(이하 알엠 충남지부)에서 진행을 한 사례⁹⁾를 소개하고자한다.

인터미디어스페이스알엠 충남지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2014 여미낙4(與美樂: Yeominak - 더불어 아름다운 예술을 즐긴다.)
- 교육목표 : 다양한 주제에 따른 이야기를 자신만의 목소리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자아표현능력향상 및 사회와의 새로운 소통의 구조 형성
- 교육장르 : 이야기 + 음악 + 미술 + 사진
- 교육강사 : 김현주, 송정민, 강서혜, 최수현, 천원진, 곽동열, 박준홍, 고미선
- 학습대상 : 드림학교 학생(탈북청소년)
- 교육기간 : 2014. 3 ~ 2014. 12
- 교육장소 : 드림학교 내 강의실 및 천안 지역

교육단계	교육진행 흐름도	
1단계	· 소심한 관찰과 사소한 기록을 통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 드림학교 테마를 만들어가다	한 주제를 이루며 15회 동안 8-4개의 테마를 삼을 것이다 이 테마는 지역 안에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좋아 하는 것과 밀접한 것은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구성될 예정이다
	1. 소심한 관찰 = 주제를 찾아가다 ↓ 2. 사소한 표현 1 = 일상을 이야기하다 ↓ 3. 사소한 표현 2 = 다양한 감각활동으로 표현하다 ↓ 4. 소심한 듣기 =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5. 드림학교 = 우리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기록한다	· 드림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이미지를 제작하다 · 드림학교 = 예술을 즐긴다 ↓ · 드림학교 = 소통을 만나다 ↓ · 드림학교 = 즐겨준다 이 과정을 통해 드림학교를 지역 안에서 설립할 수 있는 이야기는 소리따라가 제작 될 것이다
	1-15차시까지의 위의 5단계의 과정을 통해 드림학교의 테마를 교육생들 스스로 찾고 표현하는 시간이다 위의 5단계는 주파별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템션 안에서 순	· 드림학교 소리 녹음의 결과물을 소리따라로 일제 반 울어가며 팀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술적인 행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드림학교 = 일제하다 ↓ · 드림학교 = 즐겨준다 ↓ · 드림학교 = 더불어 즐기다 지역 사회 안에서 2-3회의 일제의 예술적인 행위로써 일제해 보고 교육생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예술로써 표현하고, 만들어 올리는 과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 드림학교를 다양하게 기록하다 · 드림학교 = 데미낙이다 행위를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으로 개 기록의 핵심으로써 다양한 기록의 방법으로 예술을 공유하고 표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후에 일제해 일 것이다

<표10> 여미낙 프로젝트 교육단계

-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역재단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지원하고 있다.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꾸준히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 1996년 초중고 교사와 사진예술가들이 만든 단체 -빛을 보는 아이들-사진교사 모임으로 시작한 문화 예술교육단체. 교육의 본질은 교육적 신념과 철학에 있으며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교육의 관점은 통합 교육의 기본인 다원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 9) 2012/2013/201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여미낙프로젝트는 탈북청소년과 함께 감성적 인식과 상호적 소통관계를 문화 예술적 관점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관찰, 체험, 실행이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중요한 요건들을 공유하고자했다.



유관순은 누굴인가?
 여자: 1902년 12월 18일 출생
 9살 2세 중 동해말
 천안 사람
 유관순 부친은 유중권, 모친은 이소계
 3대에 걸쳐 3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종창의 집에서 태어났다
 유관순은 한일 불협 조음의 울음 정도로 머리가 출렁였다.
 유관순의 키는 150cm, 이마가 넓고 튼튼한 체력을 가졌다
 아파치로부터 유교적 전통과 종교정신을 계승하고 기독교에 입문한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여
 권이부려 신명정을 접하면서 교육에 대한 꿈과 민족정신을 키웠다.
 1916년경 지역리 교회에 자주 들르던 샤프(Alice Hammond Sharp, 한국명 史霞理斯) 선교
 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하였다
 처음 유학당에서 5년을 공부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화학당 고등 1년생 때 한제 시위에 참가하였다
 태극기를 그려 기숙사의 학교에 붙였다.
 유관순은 감옥에서도 독립만세를 옥중 동료들을 격려했으며 그때마다 오징어 고문과 매를 맞으
 면서 웃을 광景이 많았다.
 감옥에 1년 있었다.
 19세 어린 나이,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서대문 형무소의 어두운 방에서 순국했다



사소한 표현 / 요리로 이야기하다



사소한 표현 / 사진으로 이야기하다



<그림1> 활동 결과물

회차	교육주제	활동내용		활용 교보재				
		교육내용	기대효과					
1	소심한 관찰 주제를 찾아가다 I	우리들만의 이슈를 통해 테마 찾기 난상토론을 통해 주제 찾기 감성교감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난상토론을 통해 찾는다 테마 I 나 / 테마 II 사진으로 이야기하다	자신만의 감성에서 출발하여	카메라 노트북 프로젝터 녹음기 노트 필기도구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감성을 문화예술로 실현시킬 수 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노트 필기 도구
		사소한 표현 다양한 감각활동으로 표현하다 I						
		지난차시에 정해진 테마 I 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취담의 열기 (취담회 녹음하기) 아날로그적 표현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각화를 마친 후 디지털적 표현방법을 통해 공유하기 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나를 이야기하다						
2	드림FM 소심한 관찰 사소한 기록 일상을 이야기하다	소심한 듣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다 I	자신의 감성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감성을 문화예술로 실현시킬 수 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노트 필기 도구
		지난차시에 정해진 테마 I 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취담의 열기 (취담회 녹음하기) 아날로그적 표현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각화를 마친 후 디지털적 표현방법을 통해 공유하기 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나를 이야기하다						
3	드림FM 소심한 관찰 사소한 기록 일상을 이야기하다	소심한 듣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다 I	자신의 감성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감성을 문화예술로 실현시킬 수 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노트 필기 도구
		지난차시에 정해진 테마 I 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취담의 열기 (취담회 녹음하기) 아날로그적 표현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각화를 마친 후 디지털적 표현방법을 통해 공유하기 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나를 이야기하다						
4	드림FM 소심한 관찰 사소한 기록 일상을 이야기하다	소심한 듣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다 I	자신의 감성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감성을 문화예술로 실현시킬 수 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노트 필기 도구
		지난차시에 정해진 테마 I 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취담의 열기 (취담회 녹음하기) 아날로그적 표현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각화를 마친 후 디지털적 표현방법을 통해 공유하기 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나를 이야기하다						
5	드림FM 소심한 관찰 사소한 기록 일상을 이야기하다	소심한 듣기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다 I	자신의 감성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드림FM 예술을 꿈꾸다	감성을 문화예술로 실현시킬 수 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노트 필기 도구
		지난차시에 정해진 테마 I 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취담의 열기 (취담회 녹음하기) 아날로그적 표현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각화를 마친 후 디지털적 표현방법을 통해 공유하기 나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나를 이야기하다						

<표11>세부교육안 30회차중 10회차까지

이 프로그램은 앞서 교육부, 통일부, 문화관광부의 결과 다른 관점을 보이는데 탈북청소년의 입장을 다문화 관점에서 접근하며 지역과 주민과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치유, 진로, 사회적응, 교육격차 등 탈북청소년을 온정의 대상 혹은 결핍된 존재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차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원주의의 담론을 수용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했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드림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엠 총남지부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드림학교와 2011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단체였다. 협력기관으로 인연을 맺어 2012년2013년 알엠의 향유 단체로 지역 독거노인과 탈북청소년들이 지연가족으로서 감성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14년 여미낙4 프로젝트 드림FM은 타인을 배려하는 가운데 자존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을 제공하고자 한 프로그램이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은 남한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그 무엇을 채워주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관점에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온정과 시혜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엠의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육공학 방법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탈북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는 학습대상자를 너무도 다르게만 본 일반적인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화예술교육론의 기본적 철학으로 돌아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명하게 시작했지만, 조금 즐기는 것도 있었던 것 같다
 '3. 6. 9' 놀이에서는 재미있었다 '3. 6. 9' 놀이온 한국에서 처음 했던 것 같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는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 했던 놀이라
 조금 촌스러운 느낌. 옛날 느낌이 들어서 이상했다
 그런데 재미있었고, 옛날 생각을 떠오르게 해서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감사하다 올해에는 어떤 스페이스알렘 시간이 될지 기대된다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재
 미있고 신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중국에서는 '1.2.3 나무인', 한국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는 규칙은 같은데 이름
 만 다르다 놀이규칙은 술래가 뒤 돌아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이 끝날 때 나
 머지 친구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만약 움직이다 걸리면 술래가 되는 규칙이 있다
 내가 철성이 형한테 한번 걸려서 술래가 되었다. 즐거운 놀이였다

<그림2>활동 결과물

둘째, 문화예술교육론의 철학을 배경으로 현장에서는 탈북청소년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관찰적 태도를 견지했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학습대상자들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관찰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교육은 인문학적 자기성찰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그 사연 안에 녹아 있는 소소한 이야기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즉 변화의 에너지가 자신들의 내면 안에 있음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의 과정을 함께 하고 외부로 표현하기 위해 집단영상프로그램은 영화를 감상하고 그 감흥에 대한 기록과 대화를 통해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모색을 하였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공통적인 관심과 주제를 다루는 예술경험들은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만들었다. 또한 예술적인 공동의 목표를 타인들과 함께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타협과 조율, 협력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개인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지역 및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참여자들은 탈북자로서의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일방적으로 주어지거나 동화를 위한 접근방식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전된 예술방식이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더불어 예술을 즐기는 과정은 예술교육의 힘이 얼마나 이질적인 차이를 관용으로 알아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예술가와 청소년기에 있는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만들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낸 이야기들을 예술적 관점으로 풀어내고 타인과 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다원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치유적 접근방식이나 사회의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일반적인 기대감이 아닌 청소년(탈북)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예술 가치 생산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표현하고 지역 주민들(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2014년 여미낙4 (與美樂: Yeominak - 더불어 아름다운 예술을 즐긴다.)프로젝트의 가치였다.

4. 제언

교육이라는 방점은 학습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다문화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근대를 극복하고자하는 정신에서 경쟁, 출세, 서열화 이런 것들이 아닌 다원적 문화현상에 나타난 개별적 문화현상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한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그 새로운 지평을 담을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배려, 존중, 관용이라는 타자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다문화 담론이라는 큰 틀 안에서 투 트랙으로 봐야한다.

- 1.협력에 기반한 수행적 활동이 전제되는 문화예술교육.
- 2.공동체 복원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능성.

다문화시대의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탈북청소년 그들에게 다문화, 소통, 통합 등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재설계하기 위해 근본적인 의미에서 대안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알엠의 교육사례를 살펴보며 도구적 합리성을 학습하는 현재의 경쟁적 교육으로는 새로운 지평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탈북 청소년 역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개방성과 연관된 타자이며 문화예술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톨레랑스의 시각이 필요하듯 통일을 대비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진정한 공동체 복구를 위한 테스트 베드의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인터미디어스페이스알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자료집 2012/2013/2014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교육부 www.moe.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서울북부하나센터 www.gongneung.or.kr/

대구하나센터 www.nkpeople.or.kr/

제주하나센터 cafe.daum.net/hana-jeju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 www.rainbowyouth.or.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

서울시교육청 www.sen.go.kr/

부산교육청 www.pen.go.kr/

드림학교 <http://www.drschool.org/www/>

한겨레중고등학교 www.han.hs.kr/

셋넷학교 www.34school.net/

여명학교 www.ymschool.org/

예술꽃씨앗학교 flower.arte.or.kr/